

건설, 급여총액 평균 30% 인상

올해 업종임투를 평가한다

전교조 언론노련 등 임금인상투쟁이 주된 사업내용이 아닌 연맹을 제외하면 비교적 조직력과 대중기반이 튼튼하다고 평가되는 병원 전문 건설노련의 임투결과를 살펴본다.

올 상반기 집중적인 탄압을 받으며 수많은 구속, 노조탄압을 당해온 제조업중심의 전노협에 비한다면 이들 연맹에 대한 탄압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 임투의 최대목표는 △경단협 지침분쇄 △노동운동탄압분쇄 △조직력 강화를 이들 연맹에서 공통된 목표로 내걸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조탄압으로부터 조직사수, 강화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89년말부터 진행된 노동운동탄압으로 얼어붙은 노조운동세력의 분위기가 전반적인 임투분위기를 규정했고 상당히 위축된 투쟁이 진행됐다.

건설호경기라는 특수한 조건을 타고 효과적임 투쟁으로 높은 인상을 올렸던 건설연맹을 제외하면 업종연맹 역시 낮은 수준의 기본급 타결, 효과적인 공동투쟁 전술구사의 어려움이 같이 나타났다.

전국병원노조연맹

병원노련(위원장 양건모)의 올 임투목표는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에 조합원 결집과 조직사수 △의료민주화투쟁이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올2월 임투의 선두에 섰던 서울대병원노조가 기본급 9%인상의 강제 제정에 의해 주저앉으면서부터 병원노조의 임투는 순조로운 임금인상보다는 탄압분쇄와 조직사수가 당면의 문제로 다가섰던 것이다.

병원노조의 최대노조이면서도 핵심인 서울대병원노조가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탄압과 '공익사업장 쟁의금지'조항에 묶이고 말았을 때 중소노조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노련으로는 투쟁의 활로를 찾기 힘

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자본측에서 확실한 대안을 형성해 탄압의 강도를 높일 때 지역적으로 분산된 중소병원노조의 경우 조직의 보존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 노조전임자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곳이 한군데도 없을 정도라는 것.

대구경북지역과 같이 지역적인 공투위를 구성해서 투쟁한 곳의 경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특히 동산의료원의 경우 강력한 투쟁과 KBS·현중투쟁의 고양된 분위기

전문직노조로서 사회민주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겠다는 의료민주화투쟁이 구호 차원에서만 외쳐진 것도 문제점이지만 이는 장기적인 투쟁의 과제이기도 하다.

전국전문기술노조연맹

전문노련(위원장 김문철)은 89년 10월 연맹결성 직후 12월부터 '단체교섭중앙대책위'를 구성하여 임투준비를 했다.

인문사회연구기관 과학기술연구기관 전문기술업체 경제단체분과 등 4개 분과별로 공동요구안을 작성 공동일정을 잡는 등 단위연맹

의 어려움을 연대투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단위노조차원에서 해결하려 했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연맹으로서는 조직적 단련의 기반과 큰 준비없이 공동임투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된 셈이다.

쟁의발생신고를 낸 노조가 7개 있었지만 한 곳도 파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쟁의돌입 직전에 타결됐던 것에 대해 확고한 투쟁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42개 가입노조 중 40개 노조가 타결된 연맹의 인상률은 기본급 4~18%선으로 분과별로 차이가 많다. 평균적으로 연구기관과 경제

실질인상률은 적정선에서 맞춰준다는 노·사간의 암묵적 동의가 작용한 셈이다.

임금인상률이 미흡했다해도 올 임투는 연맹이 조합원들 속에 뿌려내리는 계기였다고 한다. 임금타결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큰 동요가 없었던 것은 단위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임투를 통해 조직적 결속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또한 분과회의가 정례화됨으로써 연맹에 대한 보고체계가 서고 연맹행사가 활발해지는가 하면 쟁의지원을 통해 지역체계가 갖춰지는 등 연맹조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인문사회분과 연구단체들의 경우 몇개 노조에서 인사·경영권 참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도 부분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임투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노조에서 하위직급의 임금체계조정, 하후상박원칙이 철저히 관철됐다는 점이다. 직급학력간 임금격차가 큰 전문노련 산하 노조들의 특징을 극복하려는

병노련 임투보다 조직사수에, 의료민주화 구호만 전문노련 '조직적 단결 없이는 공투 불가' 교훈확인 위축된 정세 영향 낮은수준 타결로 끝나



올 임투의 최대목표는 △경단협 지침분쇄 △노동운동 탄압분쇄 △조직력 강화를 이들 연맹에서 공통된 목표로 내걸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조탄압으로부터의 조직사수, 강화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준이나 급여총액상으로는 30%를 웃돈다.

건설경기가 최고의 호황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사용주들의 대응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도 있었지만 7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인 삼익주택, 쟁의발생 신고를 낸 노조가 5개나 되는 등 전체적인 투쟁분위기가 고양됐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

지 않는 점에 대해 작년같은 장기파업을 유도해 무력화시키겠다는 노조탄압의도라는 반발이 거세다. 89년 12월 연맹창립 후 첫 임투를 맞은 건설노련으로서는 연맹

전국노조 연론노련 등 임금인상투쟁이 주된 사업내용이 아닌 연맹을 제외하면 비교적 조직력과 대중기반이 튼튼하다고 평가되는 병원 전문 건설노련의 임투결과를 살펴본다.

올 상반기 집중적인 탄압을 받으며 수많은 구속, 노조탄압을 당해온 제조업중심의 전노협에 비한다면 이들 연맹에 대한 탄압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 임투의 최대목표는 △경단협 지침분쇄 △노동운동탄압분쇄 △조직력 강화를 이들 연맹에서 공통된 목표로 내걸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조탄압으로부터 조직사수, 강화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89년말부터 진행된 노동운동탄압으로 얼어붙은 노동운동세력의 분위기가 전반적인 임투분위기를 규정했고 상당히 위축된 투쟁이 진행됐다.

건설호경기라는 특수한 조건을 타고 효과적인 투쟁으로 높은 인상을 쟁취한 건설연맹을 제외하면 업종연맹 역시 낮은 수준의 기본급 타결, 효과적인 공동투쟁 기술구사의 어려움등이 같이 나타났다.

전국병원노조연맹

병원노련(위원장 양건모)의 올 임투목표는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에 조합원 결집과 조직사수 △의료민주화투쟁이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올2월 임투의 선두에 섰던 서울대병원노조가 기본급 9%인상의 강제 재정에 의해 주저앉으면서부터 병원노조의 임투는 순조로운 임금인상보다는 탄압분쇄와 조직사수가 당면의 문제로 다가섰던 것이다.

병원노조의 최대노조이면서도 핵심인 서울대병원노조가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탄압과 '공익사업장 쟁의금지'조항에 묶이고 말았을 때 중소노조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노련으로서는 투쟁의 활로를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상반기 교섭대상 83개 노조 중 62개가 타결된 6월10일 현재 전체적인 인상률은 12~16%수준이다. 기본급인상률은 4~15%정도이나 한자리수를 돌파한 노조는 그리 많지않다. 근무형태와 임금체계가 복잡한 병원노조의 특성상 기본급 인상률이 낮은 것은 예상됐던 점이었지만 총급여인상폭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

세종병원 조선대병원 소화아동병원 등 파업을 한 노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극복

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자본측에서 확실한 대안을 형성해 탄압의 강도를 높일 때 지역적으로 분산된 중소병원노조의 경우 조직의 보존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 노조전임자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곳이 한군데도 없을 정도라는 것.

대구경북지역과 같이 지역적인 공통위를 구성해서 투쟁한 곳의 경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특히 동산의료원의 경우 강력한 투쟁과 KBS·현충투쟁의 고양된 분위기

전국전문기술노조연맹

전문노련(위원장 김문철)은 89년 10월 연맹결성 직후 12월부터 '단체교섭중양대책위'를 구성하여 임투준비를 했다.

인문사회연구기관 과학기술연구기관 전문기술업체 경제단체분과 등 4개 분과별로 공동요구안을 작성 공동일정을 잡는 등 단위연맹

반과 큰 준비없이 공동임투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된 셈이다.

쟁의발생신고를 낸 노조가 7개 있었지만 한 곳도 파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쟁의돌입 직전에 타결됐던 것에 대해 확고한 투쟁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42개 가입노조 중 40개 노조가 타결된 연맹의 인상률은 기본급 4~18%선으로 분과별로 차이가 많다. 평균적으로 연구기관과 경제

는 등 연맹조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인문사회분과 연구단체들의 경우 몇개 노조에서 인사·경영권 참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도 부분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임투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노조에서 하위직급의 임금체계조정, 하후상박원칙이 철저히 관철됐다는 점이다. 직급 학력간 임금격차가 큰 전문노련 산하 노조들의 특징을 극복하려는

병노련 임투보다 조직사수에, 의료민주화 구호만 전문노련 '조직적 단결 없이는 공투 불가' 교훈확인 위축된 정세 영향 낮은수준 타결로 끝나



올 임투의 최대목표는 △경단협 지침분쇄 △노동운동 탄압분쇄 △조직력 강화를 이들 연맹에서 공통된 목표로 내걸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조탄압으로부터의 조직사수, 강화의 성격을 함께 갖고있다.

아래서 요구안을 전면관철시킨 곳도 있다.

임금인상투쟁의 기본적 목표인 경제적 생활개선에 큰 성과는 못얻었지만 심각한 탄압을 겪으면서 조합원대중이 탄압의 본질을 깨닫고 기업별노조의식을 극복해야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

중소기업노조의 한계와 연맹의 조직적발전 산별노조로의 지향이 없는 노조활동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으로서는 가장 조직적인 공동투쟁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공동임투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부출연기관이 대부분인 연구기관들이 2월부터 개별타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동교섭일정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애초에 공동타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중대위'와 협의없이 공동요구안에 못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타결됐던 것은 결국 연맹의 조직력을 반영한 것이다. 경색된 분위기 아래서 교섭

단체는 7%수준, 전문기술업체는 대부분 10%가 넘는다.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급여 상승은 12~25%수준.

인문사회연구기관의 경우 애초 요구안이 기본급 9.9%였으며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뒀었다. 정부출연기관의 임금이 경제기획원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과 89년 임금인상이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이 감안됐지만 요구안 9.9%는 스스로 한계를 지었다는 지적이 있다. 기본급은 한자리로 줄이고

것은 87,88년에 구성된 노조들의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건설노조연맹

건설노련(위원장 배석범)소속 23개 노조 중 상반기 임금교섭대상은 15개, 이중 13개가 타결됐다.

건설도급순위 87위인 한보주택노조가 도급순위 상위권의 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높

준이나 급여총액상으로는 30%를 웃돈다.

건설경기가 최고의 호황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사용주들의 대응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경단협지침을 고수하겠다'며 임금동결에서 많아야 3%인 상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호황과 맞물려 '경단협지침 7%'는 분쇄해야한다며 20%이상의 높은 요구안을 제시한 노조측의 완강한 기세에 눌려 한보주택(기본급18.3% 연급여4%인상)등 몇개 노조가 고을 인상으로 조기타결되자 전반적인 흐름은 이에 맞춰지는 수준이었다.

임금이 다른 업체에 비해 낮은 이직률이 높은 건설업의 특성

도 있었지만 7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인 삼익주택, 쟁의발생 신고를 낸 노조가 5개나 되는 등 전체적인 투쟁분위기가 고양됐던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을 함께 체결한 6개 노조의 타결내용도 정년55세에서 60세로 연장 ((주)한양), 전임자수 증가(현대중공업, (주)한양) 무노동무임금 명문화 철폐 등 전체적으로 승리의 기운이 높다.

그러나 삼환기업 (연맹 위원장 노조)의 경우 4월11일부터 시작된 교섭이 회사측에서는 한달이상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다가 2.3%인상을 내놓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

작년에도 82일간의 파업을 겪었던 회사에서 이렇게 교섭의지를 보이

지 않는 점에 대해 작년같은 장기 파업을 유도해 무력화시키겠다는 노조탄압의도라는 반발이 거세다.

89년 12월 연맹창립 후 첫 임투를 맞은 건설노련으로서는 연맹원의 쟁의대책이나 지도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지적된다. 그러나 건설노조협의회 시절과는 달리 연맹내 임금평준화의지가 올 임투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한 요인이며 소속노조들이 확실히 자신감 갖게 된 계기였다고 연맹관계자는 평가한다.

(윤지환기자)